



하시구치 사부로씨

1925년 12월 27일생

1982년 미나마타병으로 인정받음.

고기잡이를 하면서 미나마타병과 싸운 것이나 미나마타병 제3차소송의 원고단장 업무를 맡고 피해자구제를 위해 활동해온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1997년 4월부터 미나마타병자료관의 증언인으로 됨.

미나마타병피해자회 전국연락회회장, NPO 미나마타대표이사.

가고시마현 이즈미시 스미요시초 재주.

저는, 미나마타병자료관의 앞에 펼쳐져있는 시라누이(不知火) 해에서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대로부터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이즈미 지역의 바다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가 죽어 물 위에 떠있고, 고양이가 발광(發狂)하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때 30대였지만, 몸이 나른하고 손발이저리고 마비되는 증상이있어 바다에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의 주민들 한테도 이상한 증상이 보였기 때문에 선두에 서서 국가와 구마모토현에 구제를 요구하는 교섭을 해왔지만 행정기구는 환자를 잘라버리는 정책을 내밀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 피해자의 구제와 미나마타재생의책임을 지게 하기 위하여 국가와 구마모토현, 짓소공장을 피고로 하는 미나마타병제3차소송을 일으켰습니다.

이 재판은, 매우 힘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힘을 얻어 16년간의 싸움끝에 정부가해결하는 방안으로 화해하는 것을 가져서 종결을 지였습니다.

당시, 무라야마 도미이치 수상의 사죄를 전제로 하여, 지금까지 환자를 잘라버리는 정책을 전환 전환시키고, 내용적으로 불충분한 점이 있었지만 1만명을 넘는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미나마타병환자의 인간으로써의 존엄의 회복과, 일본의 민주주의의 전진을 위해 자그만한 공헌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또, 저는 재판을 시작했을 때부터 생각해 온 일이 있습니다. 저의 집과 토지는 저와 아내가 미나마타병으로 인정받아 얻은 보상금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이 토지와 집을 사회에 도움이 되게 사용할려고 합니다. 동료들과 의논해서, 특정비영리활동법인으로서 'NPO 미나마타'를 2001년에 설립했습니다. 미나마타병과 환경문제, 간호사업을 활동의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의 집 부지안에는 2002년에 '사부로의 집'을 개설했습니다. 이 시설에는, 고령자 8명의 입거와 정원 9명의 시설에 다니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몸이 허락하는한 여러분들과 함께 환경과 복지활동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